

北韓地域 傳統住居에 관한 調查研究(2)¹⁾

-북한출신주민들의 지식체계분석을 통하여-

姜 榮 煥

(울산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연구는 96년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조사연구(1)'²⁾에 이은 후속적 연구이다. 본래 이 연구는 북한출신주민들의 기억속에 남겨진 그들의 주택모습을 도면으로 재현하여 북한지역 전통주거에 대한 자료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나아가 당시 그들의 인문사회적 상황을 조사하여 그들의 주택과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해방이전 북한지역 주거의 지역성, 계층성, 시대성 등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현장에서 실측조사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배치평면도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기억과 표현의 불명료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장접근이 어려운 남북분단의 현상황에서 기억에 의한 배치평면도라도 자료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라도 기존의 이론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³⁾

96년도에 수행된 선행연구는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71건의 주거사례에 대한 배치평면도와 설문지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 자료들은 3차에 걸쳐 수정과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최소한 배치나 평면형태, 공간구성 등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의 한계였던 연구자료의 수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가설적으로나마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자료들은 경상남도라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주민들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로서 대표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과 자료수가 적어 통계학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기존 이론을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대상지를 서울, 경기, 강원도 일원으로 넓히고,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그것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자료수의 확장을 통하여 선행연

1) 이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2) 건축역사연구, 제5권 2호, 25쪽-39쪽 참조

3) 기존의 북한지역 주거연구는 주로 배치평면도를 자료로 이루어졌다

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2. 조사방법과 자료의 성격

2-1. 조사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및 경기, 강원도 지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북5도 사무소와 도민회를 통하여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 하였고, 그 중에서 월남 당시 15세 이상, 즉 현재 60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674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회신자는 80건에 불과하여 10% 정도에 그치는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양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다만 설문내용중에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만 보완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월남년도
- 2). 북한에서의 생활 : 주소, 가족구성, 생업, 경제규모
- 3). 건설경험 : 집짓기의 참여여부, 역할
- 4). 마을모습 : 위치, 지형, 규모
- 5). 주택모습 : 건립년도, 대문종류, 담장종류, 담장높이, 뒷마루여부
- 6). 주택 건물 : 건물명, 배치형태, 평면, 지붕형태
- 7). 주택의 공간 : 공간명, 용도
- 8). 주택유형설명: 마을이나 주거유형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토록함
- 9). 배치평면도 : 사례를 예시하고 본인이 작도토록 함

회신된 자료중에서 3차의 검증과 보완을 거치는 동안 회신되지 않거나 도면 표현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70건의 유효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은 설문지의 기술내용이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도면이 정교한 것으로서, 배치.평면.공간구성을 기존의 자료

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회신자를 출신지역별로 보면 함북 7건, 함남 21건, 평북 9건, 평남 8건, 황해 25건에 이른다. 기대했던 함남과 평남의 자료들이 크게 보완되지는 않았으나 황해도의 자료가 크게 보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특히 황해도의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이번 연구의 자료수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신자료의 지역별 분포

지역	함북	함남	평북	평남	황해	계
선행연구	6	27	11	16	11	71
이번연구	7	21	9	8	25	70
합계	13	48	20	24	36	141

2-2. 수신자료의 성격

수신자료의 성격은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주거입지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이 54건, 대도시 지역이 10건, 면.읍소재지가 6건으로 자료의 대부분이 농어촌 주거임을 알 수 있다. 생업형태도 농업이 47건, 상업이 9건 등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하고 경제계층도 상류 7건, 중류 46건, 하류 13건 등으로 선행연구의 분포와 유사하다. 마을규모 또한 30호 미만인 12건, 30-90호가 14건, 90호 이상이 20건 등으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이룬다. 주택의 건립년대도 1910년도 이전의 것이 14건, 그 이후의 것이 45건으로 일제시기에 건립된 주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2. 수신자료의 성격비교(선행연구의 사례수)

주거입지 : 농어촌(64)54, 대도시(6)10, 면.읍소재지 6
생업형태 : 농업(47)44, 상업(10)9, 공업(7)1, 어업 2, 기타 11건 등
경제계층 : 상류 (12) 7, 중류(40) 46, 하류(18) 13

마을규모 : 30호 미만(10)12, 30-90호(21)22, 90호 이상(21) 20

주택 건립시기 : 1910년 이전 (16) 14, 1910년 이후 (31) 45

1차로 회신된 도면들은 대부분 단선으로 스캐치된 도면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담장과 건물의 평면적 형태, 구획된 공간과 공간명 등이 표현되었다. 개중에는 CAD로 작도한 것도 있으며, 외부공간의 조경과 수목명칭까지 기입한 사례도 있어 회신자의 세심한 정성을 보여 주었다. 다만 창호의 위치와 종류, 지붕선, 바닥의 종류, 기둥간격 등이 미비된 경우가 많았다.

1차수신도면을 CAD로 재작도 하고 불명료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기입하여 재발송하였는 바 2차 회신에서는 이와같은 결함들이 대부분 보완되었다. 특히 창호부분은 그 정확한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창호 입면도까지 상세히 그려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기둥간격은 기억이 나지 않아 치수를 기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3차회신에서는 대부분 수정도면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내용이 회신되었다. 세부적인 부분의 수정이 기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물통의 위치나 간막이의 변경, 가마솥의 위치, 장독대의 위치 등 상세한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벽체의 구조와 재료, 시공방법을 상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남한지방과 큰 차이가 없었다.

3차의 수정과 보완, 검증을 거친 이 연구의 자료들은 설문대상자의 기억과 표현의 불명료성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전형적인 주거유형이 통계학적으로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데에서도 반증된다. 예를 들어 함경도의 경우 28건의 사례 중에서 23건의 사례가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으로 작도되었다. 평안도의 경우 '이자집' 또는 '튼 □자형 꺾음집'이 17건 중 14건, 황해도의 경우 '□자집'이 25건 중 14건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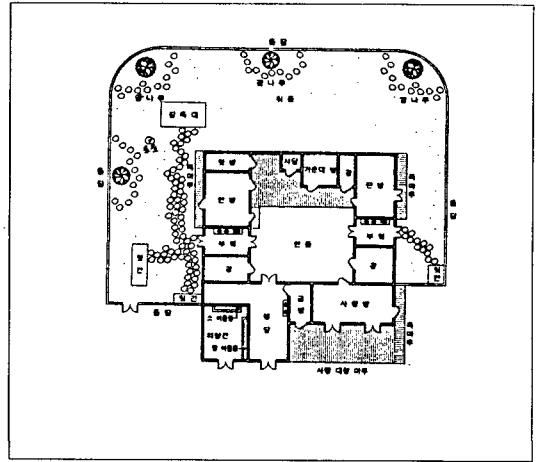


그림 1. 1차 수신도면의 사례(황해도 웅진군 감신교 씨덕)

한다.4) 기타의 주거유형을 작도한 응답자도 본인의 집이 “전통을 무시하고 지은 집”, 또는 “도시지역의 집”이라는 설명을 첨부하여 전형이 아님을 표시해 주었다. 따라서 이 자료들은 배치, 평면으로 주거유형을 분류하기에 충분하고 신뢰할만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벽체, 창호의 위치 등도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차에 걸친 수정과정에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벽체나 창호의 위치를 정확히 교정해 주었다. 공간의 명칭이나 용도 또한 상세히 기록하였고 그 지역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신뢰할만 하다. 다만 치수는 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응답자에게 사진자료도 요구하였으나 회신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입면과 형태에 관한 자료는 얻을 수 없었다. 그것이 이 연구의 결정적인 한계이며, 향후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3. 북한지역 주거유형의 분석

3-1. 함경도 지방의 주거유형

4) 황해도에서는 '봉당형 양통집'이 7건을 차지하여 '□자집'과 함께 주류를 차지 한다

외부공간의 폐쇄도는 저하된 것을 볼 수 있다. 함경도 지방의 수신자료들은 담장이 싸리나무, 수수깡, 판자 등 허술한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것은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처럼 흙담이나 흙돌담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과 대비되는 것이다. 연변지역의 함경도형 주거에서는 나무대문이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고, 판자로 만든 담장은 가축이 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텃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축우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⁸⁾

(2) 지역적 차이

같은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이라도 함남의 일부지역에서는 외양간이 꺾어져 돌출하며(6건), 정주간이 부엌과 구획되고(8건), 뒷열의 폭이 감소하는 현상(8건)이 함북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도 조사되었지만 금번 연구에서도 뚜렷한 경향으로 보여졌다. 정주간이 부엌과 구획되거나 외양간이 꺾이며 돌출하는 현상은 외양간의 불결한 냄새를 막고, 정주간의 청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한 회신자는 지역성으

로, 또 다른 회신자는 시대성으로 기술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역성으로 설명한 회신자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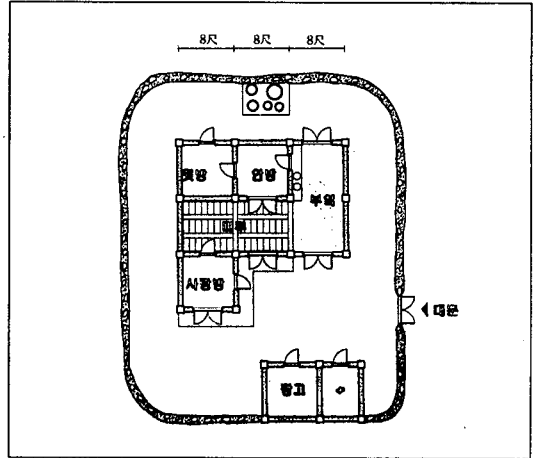


그림 5. 뒷열의 폭이 감소된 사례(함남 이원군 강원 하씨덕)

산, 함흥 이북지방에서나 부엌과 방이 칸막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함흥이남에서는 부엌과 방사이에 칸막이가 있다⁹⁾고 기술하였으며, 시대성으로 설명한 회신자는 '1940년 이전에는 부엌과 안방사이에 미닫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칸막이가 생겼으며, 칸막이를 한 시기가 바로 외양간 꺾음집으로 개조한 시기'¹⁰⁾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는 함흥 이북지역에서도 칸막이와 꺾음집의 사례가 나타나며, 농촌보다는 도시인 근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점, 칸막이의 재료가 일본식 후스마(또는 유리 미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식민지 시기의 도시화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¹⁾

살림채 뒷열의 폭이 감소하는 것도 함경남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신자료 중 치수를 기입한 8건의 사례 모두가 뒷열의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열은 8척에서 10척까지가 일반적이거나 뒷열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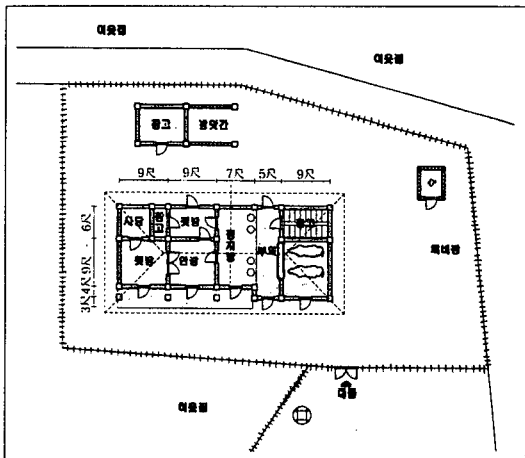


그림 4. 안청형 양통집 사례(함남 안변군 이회덕씨덕)

8) 신재익,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 주거의 건축적 특징, 건축사연구 제3권 1호(통권5권), 1994, 111쪽

9) 함남 안변군 출신 박상근씨 기술

10) 함남 북청군 출신 문곤수씨 기술

11) 정주간과 부엌의 분리현상은 1940년 함북지방을 조사한 신무성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신무성, 북선지방의 주택에 대하여, 조선과 건축 19-12, 1940

보다 2-3척 정도 적다. 이렇게 뒷열의 폭이 감소하는 이유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장공간이나 작업공간이 별채로 독립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림채의 뒷열이 주로 수장용도로 사용되며, 별도의 수장공간이 확보된다면 그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례는 함남 안변군 출신인 이회덕씨 가옥의 사례이다. 이 주택은 양통형이면서 '안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 및 경북지방의 태백산맥 주가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안변군의 사례중에 동일한 유형이 조사되었는 바, 안변군은 강원도와 접경한 함경도의 가장 남쪽 지역으로서 이곳으로부터 '안청형 양통집'이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3). 계층적 차이

함경도 지방에서도 소농계층은 외통집의 사례가 나타난다. 다만 외양간이 살림채에 부속되고, 뒷마당의 폐쇄도가 높다는 점에서 남부지방의 외통집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농계층이라도 칸수가 적은 양통집이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평면구성의 개념은 동일하면서도 공간의 수가 적다는 점이 계층적 차이를 보여준다.

부농계층 또한 살림채의 평면구성은 전형과 큰 차이가 없다. 남한의 상류계층처럼 살림채의 평면형태부터 차이가 있거나 대규모의 사랑채와 독립된 사랑영역을 갖춘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¹²⁾ 다만 부속채의 증가와 안마당의 폐쇄화, 대문간의 설치, 기와의 사용 등이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고재명씨 맥의 경우 고종때 조부가 경상북도 관찰사를 지냈고, 건축 당시 소작인 20명을 둘 정도로 양반 부농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채의 평면형태는 전형과 큰 차이가 없다. 사랑채 또한 남한지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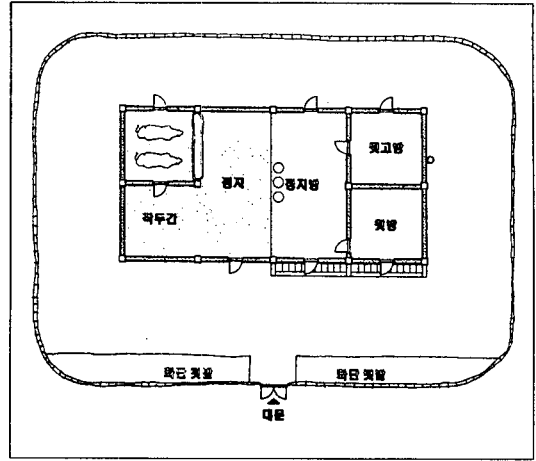


그림 6. 함경도 소농계층의 주택사례(함남 풍산군 주재현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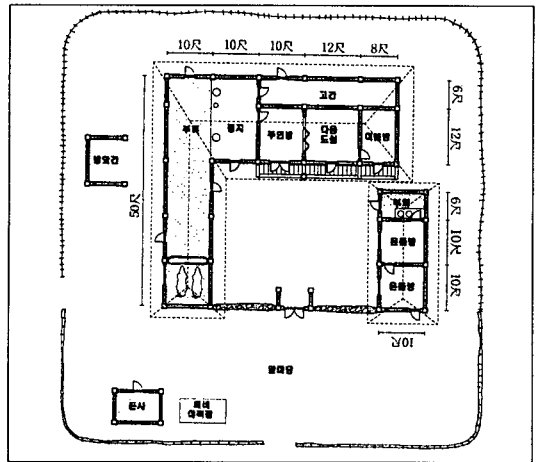


그림 7. 함경도 부농주거의 사례(함남 북청군 고재명씨택)

중농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속채에 불과하다. 다만 대문간을 설치하였고, 내담을 두어 안마당을 폐쇄화시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4) 시대적 변화

시대적 변화는 주로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도시화, 근대화를 보여준다. 도시지역에서는 양통형의 지역적 규범이 해체되고 생활양식에 따라 자유로운 평면구성이 나타난다. 그것은 도시지역에서 비농업적 경제활동, 상업화를 반영하며

12) 함경도 지방에서 사랑채는 주로 머슴의 기거공간이나 손님을 위한 침실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한 응답자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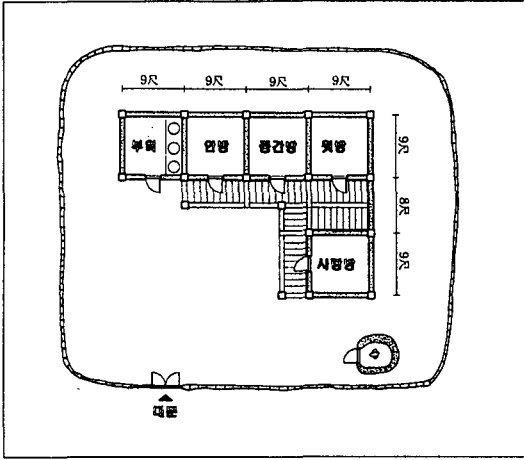


그림 8. 함경도 도시주택의 사례(함남 함흥시 백일호 씨덕)

농업과 관련한 공간이 없어지고, 상업공간이 발생하거나 임대용 침실이 만들어지는 등의 변화가 보인다.

근대적 건축부재의 사용은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두드러진 변화로 보인다. 도시인근지역으로부터 유리문창호 사용이 많이 나타나며, 벽체의 하부에 시멘트를 바르는 경우도 흔히 보인다. 유리미서기문이나 '후스마'라고 하는 일본식 장지문은 내부간막이로 흔히 사용된다. 특히 정주간을 부엌과 간막이 하는 경우 주로 '후스마' 간막이가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재료의 도입이 정주간과 부엌을 구획하는 방식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엌 바닥에 개폐식 마루판을 깔아 정주간과 단차를 없앤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연변지역 조선족 주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연변지역의 특성인지 아니면 아니면 북한지역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¹³⁾ 단지 1건의 사례만 조사되었지만 최소한 해방이전 북한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13) 1995년 3월에 열린 연변 장채촌 연구발표회에서 부엌에 마루판을 설치하는 것이 연변지역의 특수한 경향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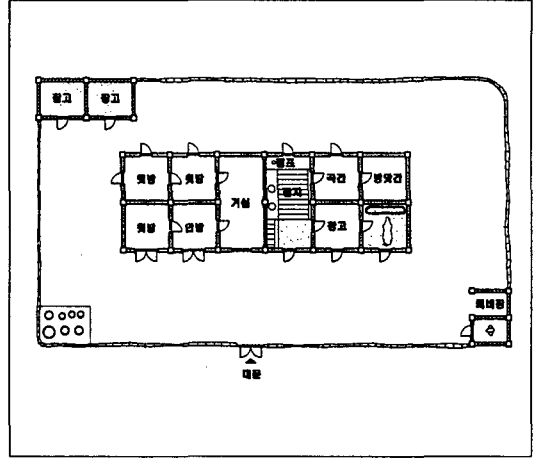


그림 9. 부엌에 마루를 설치한 사례(함북 청진시 박종철씨덕)

3-2. 평안도 지방의 주거유형

(1) 지역적 전형과 그 성격

선행연구에서 평안도 지방의 전형은 살림채와 대문채가 평행하게 병렬배치된 모습, 즉 '二字집'이라고 설명된바 있다. 이것은 건물 한 동으로 구성되는 함경도의 '외채집'과 비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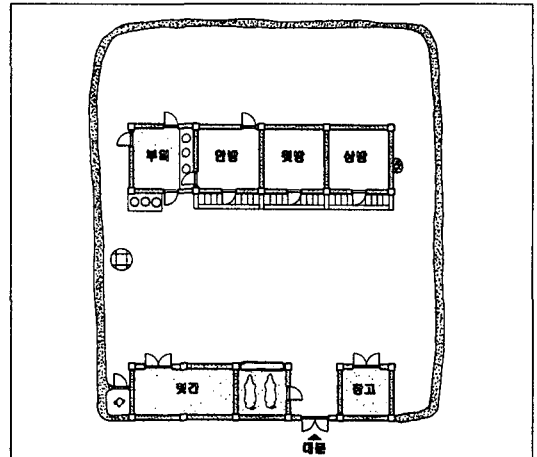


그림 10. 평안도 이자집 사례(평남 평원군 박심원씨덕)

'쌍채집'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물론 경제력에 따라 살림채와 대문채 사이에 부속채를 두는 경우도 있어 '다채형', '복채형'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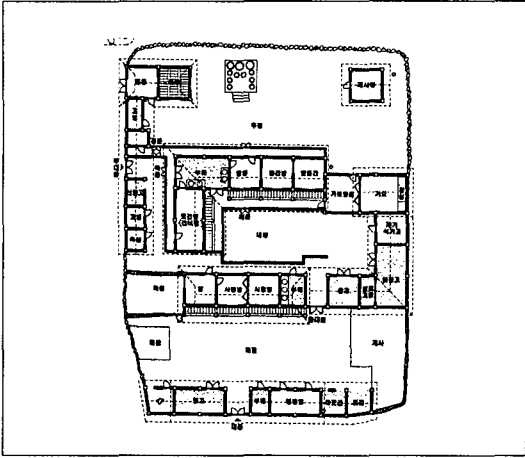


그림 13. 평안도 부농주거의 사례(평북 선천군 박형배씨택)

변 조사결과 툇마루의 사용도 흔히 나타나는 바 이것이 시대적 변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계층적 차이

평안도 지방에서도 소농계층의 경우 외채 외통형 주거가 나타난다. 이것은 ‘二자집’ 전형에서 대문채가 결여된 형식으로서 생산공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부속채의 수가 증가하면서 ‘튼 口자’의 형상으로 내정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살림채 좌우의 부속공간은 일정한 규모(3칸 이하)에서 머물고 오히려 살림채와 대문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대문채에는 몇 개의 사랑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머슴들이 기거하는 장소로서 주인영역과 구별하기 위해 내정에 칸막이 담을 설치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대농의 경우 살림채와 대문채 사이에 사랑채가 별도로 건립되면서 외정과 내정이 구분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평북 선천군의 박형배씨택은 대농으로서 장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담장으로 둘러싸인 주거영역밖으로 5동에 달하는 부속채를 거느리고 있다. 주거영역 안에만 대문채.사랑채.살림채로 구분되고 사랑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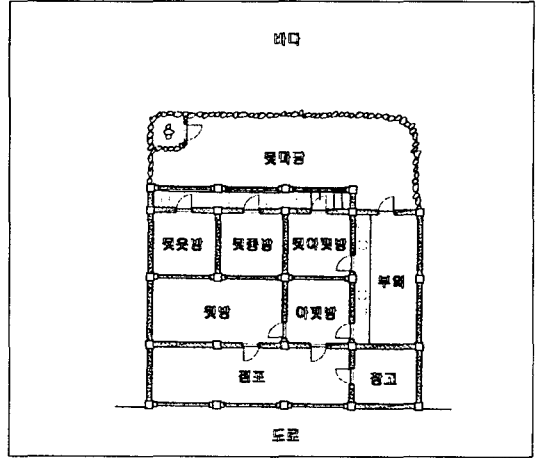


그림 14. 평안도 도시주거의 사례(평북 정주군 김기선씨택)

당과 안마당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후정에는 별당과 사당¹⁶⁾도 갖추고 있어, 남한의 명문사대부가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간구성으로 보면 대청이 없는 외통형이며, 병렬배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기본 골격은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내정에 설치된 판자담이다. 응답자의 기술에 의하면 “당시 판서지방에는 유상돈이라는 조직화된 大盜가 있어 수차의 침입을 당한후 목판벽과 석담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목판벽은 1890년에 조성된 것으로서, 일몰 직전에 쪽문 3개소를 잠가 외부와 차단시켰다”고 한다. 비단 목판벽이 아니더라도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방어목적의 폐쇄성이 강화되고 영역이 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시대적 변화

평안도지방 역시 도시지역에서는 유형화가 어려울 만큼 다양한 주거형태들이 조사되었다. 도시주거의 사례중에는 지역적 전형에서 농업생산과 관련한 공간들이 배제된 유형도 조사되었지만, 양통집과 같이 지역적 전형과 전혀

16) 후정에 있는 계사실은 누에양잠을 위한 공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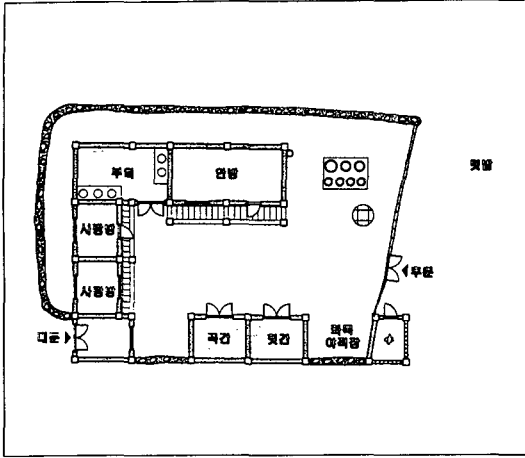


그림 15. T-모자집의 사례(황해도 은률군 유락호씨택)
무관한 모습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은 전통적인 도시지역의 주거유형이라기 보다는 일제시기 공업도시의 형성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로 해석된다.

평북 정주군의 한 응답자는 “일제때 공업지대로 생업에 따라 주거양식이 다양하고 전통양식이 드물었다”¹⁷⁾고 기술하였다. 또한 평북 용천군의 한 응답자는 “부친이 생업에 편리하도록 전통을 무시하고 지은 집”¹⁸⁾이라는 설명도 보내 주었다. 이러한 설명은 일제시기에 도시지역으로부터 서서히 전통적 격식이 해체되어 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시주택의 일반적인 성격은 부속채가 없는 외채형으로서 주거공간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도로에 면한 쪽으로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인 부역을 갖춘 셋방을 몇 개 설치한 사례도 나타난다. 이는 도시화에 따라 상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일제시기부터 주택난이 심각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유리창호의 사용이나 일본식 간막이인 ‘후스마’의 사용도 나타나고 있다.

3-3. 황해도 지방의 주거유형

17) 평북 정주군 김기선씨 기술
18) 평북 용천군 김명호씨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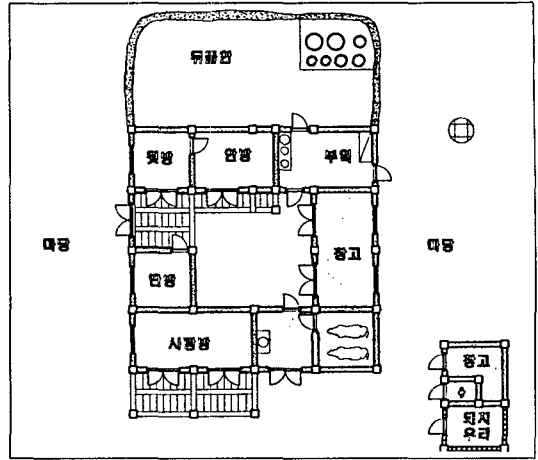


그림 16. 모자집의 사례(황해도 벽성군 최광춘씨택)

(1) 지역적 전형과 그 성격

선행 연구에서 황해도 지방의 사례는 불과 11건밖에 수신되지 않았다. 수신된 자료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형화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에서는 25건의 자료가 수신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보완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멸안산맥 이남지역인 벽성군, 용진군, 연백군에 치중되어 있고, 멸안산맥 이북지역에서는 단 3건만이 수신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수신된 자료들을 분류하면 ‘모자집’이 14건에 달하기 때문에 뚜렷한 지역성으로 나타났다. 중앙에 내정을 두고 모자형으로 공간을 배치한 이 유형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뽕집’, ‘뽕쇄집’, ‘또아리집’ 등의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멸안산맥 이북지역에서 평안도 지방의 주거유형과 같이 다양한 꺾음집으로 구성된 ‘T-모자집’이 주로 나타나는데 비해 멸안산맥 이남지역에서는 완전한 ‘모자집’이 전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황해도 주거의 지역적 구분은 멸안산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멸안산맥 이남의 ‘모자집’은 그 이북의 ‘T-모자집’과 여러 측면에서 구별된다. 우선 ‘T-모자집’들은 살림채와 부속채가 분리되어 지붕이 연결되지 않고, 벌어진 만큼 내정의 폐쇄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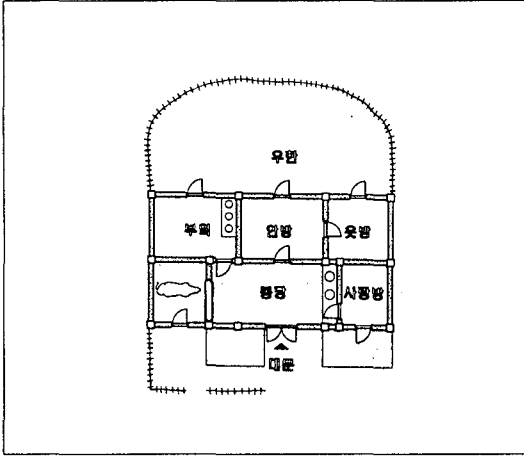


그림 17. 봉당형 양통집의 사례(황해도 웅진군 박태형씨댁)

적다. 이에반해 ‘ㄱ자집’은 건물이 분리되지 않고 지붕이 연결되기 때문에 폐쇄도가 높다. 또한 ‘튼 ㄱ자집’에서는 대청이 발견되지 않지만, ‘ㄱ자집’에서는 대부분 대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14건의 ‘ㄱ자집’중 10건의 사례가 대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ㄱ자집’은 강원도나 경북일원에서 나타나는 ‘뜰집’과도 공간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뜰집’에서 대청은 살림채 중앙에 위치하지만 황해도 ‘ㄱ자집’에서 대청은 꺾임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황해도 지방에서 ‘ㄱ자집’이 전형화한 것은 우선 기후와 방어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 연백군의 이진태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황해도 지방에 ㄱ자형이 유행된 것은 추운지방이어서 방풍의 목적이 있고, 이 지방은 옛부터 외적이 침입할 때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외침방비를 겸한 것이다. ㄱ자집은 대문만 닫으면 침입이 불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영호남의 一자 ㄱ자집은 허술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기후가 더 추운 평북지방에서 ‘이자집’이나 ‘튼 ㄱ자집’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한 경기도 일원에서 ‘ㄱ자집’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개성이나 서울에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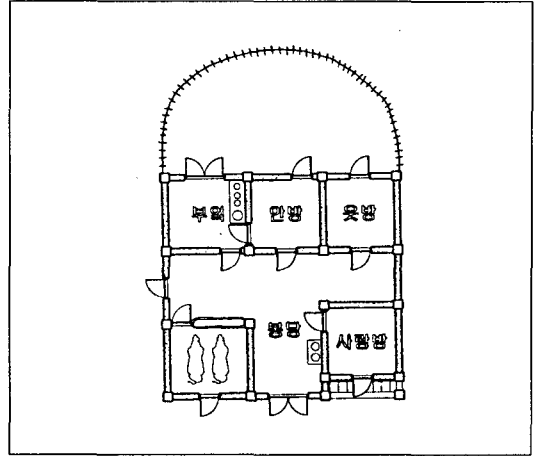


그림 18. 석줄백이 양통집의 사례(황해도 웅진군 조종목씨댁)

행된 도시형 주거가 멸약산맥까지 유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계층적 차이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또 하나의 성과는 황해도 양통집의 존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1건의 사례밖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무려 7건이나 수신했기 때문이다. 황해도 양통집의 존재는 리종목의 연구¹⁹⁾에서 이미 언급된바 있고, 황해도에 양통집이 주류를 이룬다는 김광언의 주장²⁰⁾도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양통집이 황해도의 전형은 아니지만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다만 선행연구의 결과와 종합하면 주로 멸약산맥 이남지역에서 양통집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황해도의 양통집은 정주간이 없다는 점에서 함경도 지방의 양통집과 차이가 있다. 강원도

19) 리종목,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 출판사, 1961, 60-73 그는 정주간 없는 양통집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황해남북도 일부 산악지대에 분포한다고 하였다

20)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8쪽 그는 황해도 지역의 서해도서를 조사하면서 봉당형 양통집이 멸약산맥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한다고 주장하였다.

및 경북일원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청형 양통집과 유사하지만, 안청이 없고 그 부분이 흙바닥으로서 대문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 공간을 응답자들은 모두 '봉당'이라고 기술해 주었다. 따라서 정주간이 있거나 안청이 있는 양통집과 구별하기 위해 '봉당형 양통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ㄱ자집'과 '외채 양통집'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강원도, 경북 북부, 경기북부로 이어지는 주거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황해도 양통집은 'ㄱ자집'에 비해 주거규모가 작고 생산공간이 적다는 점에서 중농이하 계층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양통집을 작도한 응답자들은 자신의 계층이 중농 혹은 소농이라고 기록해 주었다. 또한 벽성군 출신의 최광춘씨는 "10호 내외의 한 마을에서 1호정도의 ㄱ자집이 있다"고 기술하였으며, 웅진군 출신의 변영문씨는 "자신의 집은 서민주택이며, 부호층에서는 60-70평정도의 ㄱ자집에 대청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웅진군의 조종목씨택은 양통집에서 ㄱ자집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를 보여준다. 리종목은 석줄로 이루어진 겹집을 '세겹집'이라고 불렀는데, 이 역시 양통집에 속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강원도 목수들이 부르는 호칭인 '석줄배기 양통집'이 더 적절할 듯하다. '석줄배기 양통집'인 이 주택은 '두줄백이 양통집'에서 앞열과 뒷열이 벌어진 모습을 보인다. 중앙열에 지붕이 개방되지 않아 내정이 없지만 공간구성은 'ㄱ자집'과 유사하다. 이 집에서 중앙칸의 지붕만 도려낸다면 그대로 'ㄱ자집'이 될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발전단계상 'ㄱ자집'은 '양통집'에서 발전해 왔음을 상정할 수 있다. 중앙 봉당의 지붕을 개방하여 환기와 채광을 개선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경제력이 상향될수록 주거규모가 증가하는데 이때에도 ㄱ자 패턴은 지켜진다. 다만 내정의 크기가 증대하면서 실수를 증가시킨다. 이때 생산공간이 ㄱ자 영역의밖에 건립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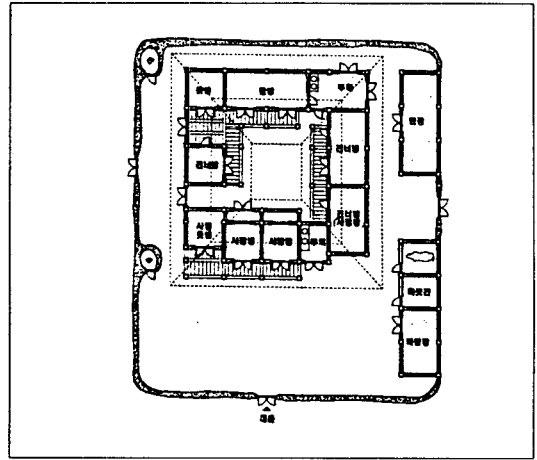


그림 19. 황해도 부농주거의 사례(황해도 벽성군 이선재씨택)

많다. 담장은 주거 뒷부분에만 둘러쳐 후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문과 사랑방이 있는 전열은 주거외부에 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이 아주 높은 집에서는 ㄱ자 건물전체를 둘러싸는 담장을 만들어 사랑채 앞을 내부화시키는 모습이 보여진다. 물론 부속건물도 담장을 따라 정연하게 배치된다. 이는 외부와의 경계장치를 겹으로 만들어 방어를 유리하게 하고 외정의 프라이버시를 높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3). 시대적 변화

황해도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사례가 단 2건 밖에 수신되지 않아 일제시기 도시화의 영향을 잘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웅진군의 최경모씨택은 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격식이 해체되는 예를 보여준다. 이 주택은 본래 'ㄱ자집'이었다고 하는데 1935년 'ㄷ자집'으로 개조했다고 한다. 'ㄷ자집'으로 개조하면서 전열의 생산영역과 후열의 거주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때 살림채 전면에 유리문을 달아 폐쇄화시켰다. 주거내부에 있던 생산공간이 주거외부로 분리되는 경향은 이 밖의 사례에서도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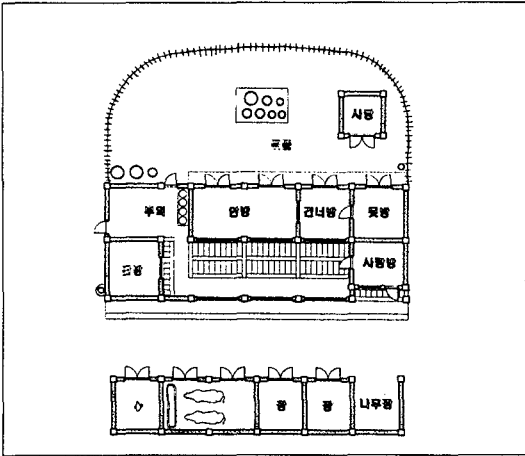


그림 20. 일제시기의 개조 사례(황해도 웅진군 최경모씨댁)

장연군의 최진헌씨 댁은 읍소재지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가족은 상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생산공간이 없고 침실과 마루방으로만 구성된 도시형 주거이다. 다만 ㄱ자형 배치와 공간구성은 여전히 지역적 전형을 고수하고 있다. 벽돌담을 사용하고 마루방 사이에 유리 미서기문을 사용했다는 점이 근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3-4. 북한지역 주거유형의 지리적 분포

수신된 자료들을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소재지를 지도에 표시해 본 결과 각 유형들은 뚜렷한 분포권을 보이고 있다. 물론 수신된 자료가 아직까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자료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 주거문화권을 분류한다는 것은 불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분된 주거문화권과 전형적인 주거유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위하여 제시해 두고자 한다.

우선 '정주간형 양통집'은 함경북도 뿐 만 아니라 함경남도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현상이 보인다. 특히 함경북도 전역과 함경북도의 북부지방에서 '정주간형 양통집'의 분포비율은 84%(16/1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함경남도의 남부지방, 즉 동해안에 면하는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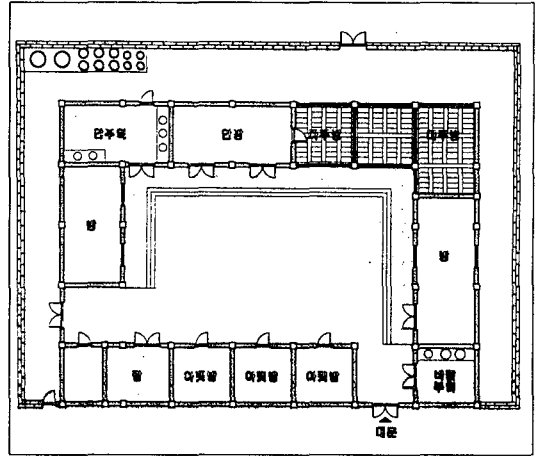


그림 21. 황해도 도시주거의 사례(황해도 장연군 최진헌씨댁)

서는 외양간이 마당쪽으로 돌출하는 소위 '외양간 돌출형 양통집'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일자형 양통집'과 '돌출형 양통집'의 분포비율은 각기 39%(14/36)에 달하기 때문이다. '외양간 돌출형'이 지역적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지역의 집중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안도 지역에서는 '2자형 외통집'이 전역에 걸쳐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종래의 이론과 달리 '꺾음형 외통집'도 폭넓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꺾음형'은 '2자형'에서 부속체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안북도에서는 꺾음형 외통집의 분포비율이 38%(6/16)이지만 평안남도 및 황해도 북부에서는 61%(11/18)로 증가한다. 또한 황해도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내정의 가로폭이 줄어들면서 내정의 폐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일단 지역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황해도 지역에서 멸악산맥의 북부지방은 완연히 '꺾음집'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멸악산맥의 남부지방은 'ㄱ자집'과 '봉당형 양통집'이 주류를 이룬다. 'ㄱ자집'은 52%(13/25)를 차지하며, '봉당형 양통집'은 36%(9/2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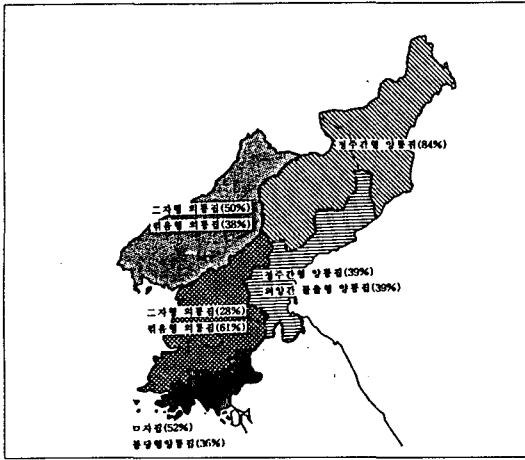


그림 22. 북한지역 주거유형의 지리적 분포

다만 이 지역에서 '口자집'과 '봉당형 양통집'은 계층적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황해도 지역은 멸악산맥을 기준으로 주거문화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96년도 선행연구와 이번 연구의 결과 해방이전 북한주거에 대한 140건이 넘는 새로운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었다. 물론 이 자료들은 현장에서 실측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의 불명료성성과 표현의 부정확성 등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평면과 배치, 공간구성에 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서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데 대단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민들의 기억과 재현을 통한 본 연구의 방법은 남북분단의 현상황에서 북한주거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와 이번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지역 전통주거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함경도 지방

함경도 지방 주거의 전형적 성격은 종래의 이론과 같이 '정주간이 있는 외채 양통형'으로 나타난다. 상류계층으로 갈수록 부속체가 증가

하여 대문채의 건립, 폐쇄적인 담장의 사용 등이 나타나지만 살림채의 경우 그 평면형태는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뒷열의 폭이 감소하면서 외양간이 돌출하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공간구성의 기본적 골격은 차이가 없다. 한편 부엌과 정주간이 구획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바 이는 일본식 장지문이나 유리 미서기문의 보급과 더불어 정주간의 청결성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변화로 보여진다. 함경도의 최남단인 안변군에서는 '안청형 양통집'이 발견됨으로써 이 유형이 경북 북부로부터 함경도 남단까지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평안도 지방

평안도 지방 주거의 전형적 성격은 '쌍채 외통형', 또는 '이자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ㄱ자, 혹은 ㄷ자 꺾음집도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꺾음집들이 멸악산맥 이남의 개성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종래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꺾음집의 경향이 시대적 현상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여하튼 건물이 두채 이상으로 건립되어 내정을 형성하며, 외통형 평면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함경도 지방의 성격과 차이가 있고, 내정의 폭이 좁고 흙돌담의 높은 담장이 사용되며 뒷벽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부지방의 주거와 차별화된다. 상류계층으로 갈수록 부속체가 증가하면서 마당이 분화하고 독립적인 사랑영역이 확보되지만 살림채의 평면구성은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3). 황해도 지방

이번 연구에서는 황해도 지방의 멸악산맥 이남의 자료들이 주로 수신되어 선행연구의 멸악산맥 이북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멸악산맥 이북지역에서는 평안도의 경우와 같이 꺾음집으로 구성된 '튼 口자집'이 주류를 이루며, 그 이남지역에서

는 ‘口자집’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口자집’은 완전히 건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내정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주공간이 없는 ‘봉당형 양통집’도 다수 나타나는 바 이는 이 지역에서 중류이하의 계층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口자집’과 ‘봉당형 양통집’이 동시에 분포하는 양상은 황해도 남부에서 경기북부를 거쳐 강원도 일대까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하나의 주거문화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지역의 지역성은 전통주거의 유형화에 있어서 살림채의 평면형식만이 아니라 배치유형, 담장의 폐쇄도, 내정의 존재와 폐쇄도, 대청의 존재, 반자의 존재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남북한 주거를 총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성격과 분포권을 재분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밖에도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도시화, 근대화의 여파로 전통적 규범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근대적인 재료가 사용되는 등의 변화도 보여졌으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참고 문헌

1. 小田內通敏, 1923, 朝鮮部落調查豫察報告, 제1책, 조선총독부
2. 小田通敏朝, 1924, 朝鮮部落調查報告, 제 1 책, 조선총독부
3. 今和次郎, 1924, 朝鮮部落特別調查報告, 제1 책 (민가), 조선총독부
4. 岩規善之, 1924, 朝鮮民家の 家口에 대하여, <조선과 건축> 1-5
5. 野村孝文, 1938, 朝鮮住宅의 一考察, <조선 과 건축> 17-5
6. 리종목, 1960,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유형과 그 형태, 19세 중엽- 20세기 초엽, <문화유

산> 5호

7. 리종목, 1960,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발전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 6호
8. 황철산, 1965,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 발전, 고고민속 3호
9. 주남철, 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0. 장보웅, 1981, 한국의 민가연구, 진보체
11. 신영훈, 1983, 한국의살림집, 열화당
12.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3. 김홍식, 1993, 한국의 민가, 한길사
14. 강영환, 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5. , 1989, 韓國 傳統民家 연구의 動向 과 果題, [건축] 제33권 2호
16. , 1989. 三陟以南 東海岸 지역 傳統民 家에 관한 연구
- 地方木手들의 知識體系 分 析을 통하여-, 서울대 박사논문
17. , 1989, 民族科學的 方法을 圓용한 傳 統住居文化的 연구
-동해안 지역 傳統民家를 대 상으로-, 韓國문화인류학21집
18. , 1992, 지방대목들의 지식체계 분석 을 통한 전통주거문화의 연구
-북부 영남지방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 연구논문집 8권 2호 통권 40 호
19. , 1994,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住居 空間 및 生活方式
-龍井市 智新鄉 長財村을 대 상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지 5권

A Study on the Traditional Houses of North Korea(II)

- Based on the Memories of Immigrants from North Korea -

Kang, Young-Hwan
(Professor, Ulsa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traditional houses of North Korea(I) have been published in 1996. This paper is written to supplement the preceding paper. This paper aims at collecting new data of traditional house in North Korea. But still being prohibited for the researchers of South Korea to approach to the field, I had to depend on the memories and experiences of the immigrants from North Korea who are now living in Kangwon and Incheon Province.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drawings, they described vivid memory of their old houses. I was able to add new data of 70 cases, which are significant and valuable as much as those of the real field are.

Those data, including the existing data, are enough for me to analyze statisticall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s among economical classes, and the periodical change. It opens the way for verifying the existing theory. Regional characteristics of house in North Korea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 a. Hamkyong-do ; Concentrating spaces into one building, Double-fold type plan, Including 'cheongju-kan'space, Weak fences
- b. Pyongan-do ; Concentrating spaces into two buildings, 二 shape buildings , Single-fold type plan, Strong fence
- c. Pyongannam-do to Myolak mountains; Concentraing spaces into two buildings, ㄱ, ㄴ shape buildings, Single-fold type plan, Strong fence
- d. Southern area of Myolak mountains; Concentrating spaces into one building ㄹ shape building, Single-fold type plan with wooden floor space